

청년창업농 성공정착 모색

익산시·전문가·청년창업농 포럼... 지역유입방안 등 맞춤형 지원·네트워크 활성화·조직화 필요성 등 제안

익산시가 전문가·청년창업농과 함께 청년창업농의 지역 유입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시는 16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정병채 익산시 명예농업시장을 필두로 한국농수산대학 정도채 박사, 한국농수산대학 교장 장광진 교수, 군장대학교 황만길 교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홍영호 창업성장본부장 청년농업인연합회 강선아 회장, 희망농정위원회 김근식 위원장 청년농업인, 행정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추진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농수산대학 정도채 박사와 청년농업인연합회 초대 회장이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선아 회장이 "농촌 청년 창업의 현황과 과제와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정착을 위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로 시작했다.

이어 청년농업인의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영농활동 뿐만 아니라 농식품 제조·가공 체험·관광, 그 밖의 창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익산에서 새로운 도전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토론 시간도 마련했다.

청년농업인들은 젊은 나이에 귀농을 선택하고 농식품 제조 가공, 체험·관광 등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려면 하지만 용자금 상환 압박,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거나 현재 생활에 안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로 청년들이 적

어 소외감이 들고 토착민간의 유대관계가 부족하여 정보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청년농업인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조직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홍영호 창업성장본부장은 "다양한 기관에서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이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농업인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익산시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수산대학 교 등 유관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발굴하여 연계 지원이 이뤄질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상주해 있는만큼 이와 연계하여 청년창업농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착하기 좋은 익산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아낌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소상공인 지원에 지역 화폐인 익산 다이로움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진은 익산시청 전경.

소상공인 지원에 익산 다이로움 적극 활용

익산시, 이벤트·포인트 지급 등

익산시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 지원에 지역 화폐인 익산 다이로움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16일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분야별로 유동적으로 운영·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며, "출시 이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을 통한 이벤트 진행 및 포인트 지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등에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도입한 익산형 마을전자상거래를 익산시민의 특화된 상품으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30억원이 넘는 사상 최고 매출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익산형 마을전자상거래에 추가 비용 없이 배달 앱을 장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 친척결혼식 참석, 서울 거주 70대 코로나 확진

강서구 374번과 접촉

친척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군산에 방문했다가 확진자와 접촉(강서구374번) 통보를 받은 70대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16일 강진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에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던 70대가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군산에 방문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군산 27번 확진자 A(70대)씨는 서울

거주자로 지난 13일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군산을 방문해 친척집에 머물고 있었다. A씨는 지난 15일 강서구 37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군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뒤 오후 8시 경 코로나19에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무증상으로 친척 결혼식에 참석을 위해 군산을 방문해 13일부터 15일까지 친척집에서 머물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시는 A씨의 방문지를 대상으로

CCTV를 확인해 방문지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으며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강진준 군산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 할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참석하며 더 이상의 확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내실있는 감사로 집행부 견제"

군산시의회, 25일까지 행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의 백미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집행부 사업이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시정이 추진했는지에 감사목적을 둔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각 상임위원 현안사업 추진상황과 대책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행정사무감사 중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의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를 준비해 왔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 이하 행복위)는 지난 12일과 13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현황 및 주요사업 등 3건의 간담회와 선유 스키야센터 등 6곳의 현장방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 수집은 물론 현안문제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행복위는 자치행정국과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무원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과 재정 계획수립, 공유재산관리, 문화재 및 시설물 관리실태, 관광산업 육성 방안인 사회복지 관리실태, 아동복지, 체육시설 보조금 등 243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은 "편견적인 감사나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책 중심의 감사 시민복지 증진과 군산미래 발전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보여주기식 감사가 아닌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소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 이하 경건위)도 고군산군도 케이벨가 조성사업 등 8건의 간담회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 섬유산업 해법 '머리맞대'

익산시, 섬유기업 소통간담회

익산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참체된 섬유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18일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이후 참체된 섬유(봉제)산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섬유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현을 시장과 지역 섬유업체 기업 대표, 애로융합섬유연구원 익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유산업

봉제, 염색, 방직, 편직 등 분야별 기업대표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내수침체, 수출 부진 등과 함께 청년노동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 생산설비 노후화로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함께 참석한 애로융합섬유연구원, 익산상공회의소 등도 익산 친환경 신소

재 등의 미래 섬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을 시장은 "섬유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보다 다각적이고 활발한 섬유업체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전했다.

익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섬유환경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섬유업체 노후 생산설비 및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섬유업체 2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아동보호체계 구축

군산시가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적극 발굴하고 적절한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격 책임이 강화된 아동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합동) 시행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는 정부와 발맞춰 민간기관에서 담당해 오던 아동학대 조사·상담 등 아동보호 업무를 공공인력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아동보호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아동보호전문위원을 채용하여 개별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상담 및 안락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 기존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이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설 및 가정에서 보호 중인 학대피해아동의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추진

군산시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오는 2021년부터 아이스팩을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충전제로 만든 아이스팩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신선식품 배송시장이 확대되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스팩이 일반 쓰레기와 섞여 배출돼 매립 또는 소각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무분별한 아이스팩 배출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스팩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하여 주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아이스팩을 모아오면 아이스팩의 무게에 따라 10L 종량제봉투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환할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